

# 선각종, 심장병아동돕기 적극 나섰다

## '1사찰 1어린이 결연' 운동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이 심장병어린이 돕기에 적극 나선다. 선각종은 5월 3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사무실에서 최선규 후원회장에 심장병어린이를 위한 성금 62만원을 전달하며 심장병 어린이 돕기 운동의 스타트를 끊었다.

선각종은 종단소속 각 사찰과 불우 심장병 어린이를 결연시키는 '1사찰 1어린이 돕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전국 186곳 말사에 불우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성금함을 따로 마련, 신도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종단 스님들이 직접 거리에서 어린이 돕기 탁발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서울 도심사 주지 진불스님은 말마도·길상도 전시회를 열어 판매 수익금 일부를 심장병어린이 돕기에 보탬 계획도 밝히고 있다.

한국 어린이보호재단에 따르면 매년 6천여명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가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 빈곤과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고 성금 등으로 수술받는 어린이는 극소수인 100여명 안팎. 31일 보호재단 이배근 회장은 "현재 176단체가 후원 단체로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기독교단체이고 불교종단이 후원종단으로 참가한 것은 처음"이라며 "선각종이 미래 한국의 기둥이 될 어린이를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신다

니 너무나 고맙다"고 말했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은 "그동안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회복지에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래를 희망차게 만드는 주역이 될 어린이를 돕는 일은 곧 이 사회를 정토로 만드는 일과 다르지 않기에 아

### 186말사에 성금함...신도들 동참유도

### 매년 6천명, 빈곤·무관심으로 방치

픈 어린이, 학대받는 어린이, 밥을 굶는 어린이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종단이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선각종 총무원장 정암스님(왼쪽에서 세번째)이 최선규 한국어린이보호재단 후원회장에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성금에 동참한 덕심사 주지 진불, 수곡사 주지 진안스님, 맨 오른쪽은 인천 천불암 주지 선주스님.

병어린이를 위한 수호종단 인증패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으로부터 받았다.

한편 정암스님 등 선각종 스님 1백여명은 5월 15일 광주종합고속터미널 앞 광장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계승 현열에 동참,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 직지사·영주포교당 수행환경 위기

인근에 식당등 건축 스님·신도들 공사중지·설계변경 요구

수행환경을 어지럽히는 건축공사가 경북 김천시 직지사와 영주포교당 인근에서 잇달아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 본사인 김천 직지사(주지 법성)는 5월 만덕전에서 60개 말사 스님 및 신도 등 1천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지사 산문 앞 건물 신축허가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직지사 산문 앞에 있는 개인사유지 942평중 300여평에 대해 지주가 지난 99년7월 김천시의 건축허가를 받아 식당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세우려 하자 직지사측이 사찰 정문 앞의 식당허가는 사찰 정서를 해치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주측은 사유재산에 대한 부당한 침해 행위라고 맞서고 있으며, 김천시는 최근 이 지

역이 '직지사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부지 매입 또는 건축허가 철회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 영주포교당(주지 법라도)도 바로 옆에 4층 규모의 원불이 건축중이어서 수행환경 보호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 건축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주포교당은 지난 4월 포교당 바로 옆에 4층 건물의 원불 16세대가 건설되자 영주시에 "전법도량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축시행 중지를 요청했다. 또한 영주를 비롯 인근의 안동, 의성, 봉화 지역 사찰의 스님과 신도를 중심으로 '전통사찰 보존 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도기스님)를 지난 5월3일 결성하고, 건축허가 취소, 설계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덴마크 코펜하겐에 개원한 천태포교당의 관음보살상 점안법회 모습.

## 천태종 덴마크포교당 개원

주지 월장스님, 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이 종단 최초로 덴마크에 해외포교당을 건립, 본격적인 해외포교에 나선다. 천태종은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감사원장 정산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현지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9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천태포교당 개원식 및 관세음보살상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용스님은 덴마크 천태포

교당 초대 주지로 월장스님을 임명했으며, 천태포교당 개원의 실질적인 역할을 한 현지교민 고대장씨를 신도회장으로 임명했다.

월장스님은 이날 "코펜하겐의 포교당을 거점으로 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남쪽으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대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포교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 불교 日전파 감사 부여에 報恩불상

'日 도래문화 아는모임' 서



일본 시민들이 만든 일광삼존불.

일본 나가노(長野) 시민들이 백제가 불교를 전해준 데 대한 보은으로 과거 백제 성왕(聖王)이 조성해 전래했던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을 그대로 복원 금동불상을 조성, 10월 4일 한국 부여 조왕사로 보내온다.

일본 나가노의 '도래문화 아는모임'(회장 후쿠시마, 일본 선광사 현종원 주지) 소속 회원 100여명은 불상을 옛 백제의 수도 부여에 옮겨 봉안하기 위한 법회를 9일 나가노현 소재 재일본 한국불교 태고종 총본사인 금강사에서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주관으로 봉행했다.

김재경 기자



1일 김해 가야랜드에서 열린 중국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 및 위령제.

## 중국여객기 사고희생자 합동영결식

임인택장관 등 800명 참석, 종교초월 천도재도

1일 김해 삼방동 가야랜드 주차장에서 중국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영결식 및 위령제가 열렸다. 이날 유가족과 임인택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8백여명의 시민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고인들의 넋을 달랐다.

지난 4월 15일 발생한 중국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의 49세 막재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9시 30분, 식전행사

인 살풀이 춤으로 영결식이 시작됐다. 이어 열린 1부 행사는 고인에 대한 묵념, 7발의 조포 발포, 분향 및 헌화, 유가족 대표 조사, 정부 대표와 중국 국제항공공사 간부의 추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천도식에서도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종교를 초월,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김해=천미희 기자

## 해인종 창종 3돌 기념법회 봉행

대한불교해인종(종정 혜지)은 5월 3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종 3주년 기념 및 한일 월드컵 16강 기념법회를 열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해인종 종정 혜지스님과 천태종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을 비롯 각 종단스님과 신도 3백여명이 동참했다. 혜지스님은 법문



을 통해 "창종의 근본 뜻을 되새기며 전 종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법을 널리 퍼는데 진력하자"고 당부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 6·25때 팔만대장경 보호

### 故 김영환장군 공적비 제막식

17일 해인사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상부의 폭격 명령을 거부하여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을 보존한 공군장교 김영환 장군(사진)을 기리는 '김영환장군 팔만대장경 수호 공적비' 제막식이 17일 오전 11시 해인사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과 합천 해인사가

주관하고, 공군본부에서 후원하는 이날 공적비 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원로스님, 공군본부 참모총장, 공군관계자, 유가족 등이 참석, 김영환 장군의 숭고한 뜻을 기릴 예정이다.

부지면적 118㎡, 높이 2.3m, 기단 높이가 17.5cm 크기로 해인사 경내에 건립되는 공적비는 팔만대장경 경관을 본뜬 모습의 오석과 황동석으로



글씨를 썼다.

비문에는 '민족혼인 고려팔만대장경을 국난 중에 호국하고 재난에도 호국했네, 한국전쟁의 위기 속 김영환장군이 지켰으니 이 나라와 함께 영원토록 빛나라'고 적혀 있다.

김원우기자

"부처님 인연에 오직 정성을 다합니다"

# 아라냐

스님을 위한 승복과 신도님이 입으실 법복, 오로지 정성을 다해 짓습니다.

승복 맞춤 판매전문

- 가사, 장삼, 두루마기, 누비, 모시, 삼베, 승복, 신도복, 동배, 티셔츠, 남방, 방석 등

부산시 서면 지하철역 부전지하상가 F6호  
051)818-8063

##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 [마·가·목]

산승이 전신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전신의 약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살시다. 프로그램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재분량을 탕재로 하여(한팩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 저려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에병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어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원의**

원주대학교 보우국사 일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적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든 물어보세요' 방영

# 간(肝)의

간 지방간 간경화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참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방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인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참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향이리에 넣고 왕겨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양속에 묻어둔 빈 향이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